

100년 장수하는 선한 기업을 꿈꾸다



(주)선일금속 황본현 대표는 상업용 주방기구 분야 1세대로 주방기구 제작에서 시작해 대형 주방시설 디자인과 컨설팅까지 영역을 넓히며 회사를 이끌어 왔다.

우리나라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제조업에 45년간 몸담아 온 황본현 대표. 상업용 주방기구 분야의 1세대로 꼽히는 그는 자부심 하나로 빠른 시대변화에 발맞춰 선일금속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일흔을 넘은 나이에 왕성한 활동력으로 영역을 넓혀 온 그의 거침없는 행보에 최근 제동이 걸렸다. 2021년 간암 판정을 받고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다. 원하지도, 예상치도 않은 급격한 변화를 계기로 1975년 회사를 창립할 때 회사명을 선일(善一)이라 이름 지은 이유를 되새기게 됐다.

‘선일(善一)’, 사명에 담은 선한 뜻

“옛날에 동네 가게 사장님의 좌우명이 ‘일일일선(一日一善)’이었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하자는 뜻인데, 한여름에 큰 들통

에 얼음물을 가득 채워놓고 누구든 마실 수 있게 내놓곤 하셨어요. 그게 참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지을 때 ‘일일일선’에서 따와서 ‘선일’이라고 짓고, 사훈에도 넣었습니다.”

서른이 채 되지 않은 젊은 엔지니어였던 황본현 대표의 열정에 회사는 쑥쑥 성장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할수록 선일금속의 활동 영역은 점점 넓어졌다. 상업용 주방기구 제작에서 시작한 회사는 대형 주방시설 디자인과 컨설팅까지 영역을 넓혔다. 자연히 큰 일이 따라왔다. 호텔, 리조트, 병원, 학교, 기업 등 대형 주방시설을 수주하며 역량을 키웠다. 안산 공장에 이어 천안에 새 공장을 짓고 서울 성수동에 사무실과 연구소를 열며 국내 산업용 주방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은 선일금속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무대였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적인 이벤트였으니 그에 맞춘 대규모 주방시설이 필요했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호텔에 주방시설을 설치하는데, 당시에는 완전히 산골짜기에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추위에 떨며 밤새 설치하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회사의 성장에도 황본현 대표는 안주하지 않았다. 새롭게 해외 식자재 무역에 도전하고 경기도 광주에 제3공장도 준비했다. 공장 설계를 거의 마칠 무렵, 정기적으로 받던 건강검진에서 간암 판정을 받았다.

친구의 영향으로 기부를 결심하다

“B형 간염 보균자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간 초음파와 혈액검사를 했어요. 젊어서부터 꾸준히 했으니 벌써 30년째였지요. 매년 건강검진도 했는데 갑자기 간암 판정을 받은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신 없이 병원을 알아보다 서울아산병원으로 왔고, 간이식·간담도외과 김기훈 교수님에게 간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45년간 쉽 없이 달려온 황본현 대표의 일상에 작은 쉽표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언젠가는 은퇴를 준비하리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급히 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터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서울아산병원을 후원한 친구의 말이 생각났다. ‘세상을 떠날 때 전부 가져갈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일에 쓰라고 후원을 하면 다들 좋은 것 아니냐’고 하던 친구의 밝은 모습이 유난히 또렷하게 떠올랐다.

“기부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제게도 의미 있는 일이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한번 마음이 결정되자 그 다음은 일사천리였다. 자녀들은 다 결혼해 독립했으니 아내와만 상의하면 될 일이었다. 아내 역시 그의 뜻을 지지해주었고, 나중에 알게 된 자녀들도 모두 ‘잘 하셨다’며 응원을 보냈다. 황본현 대표는 2022년 6월 서울아산병원 발전을 위해 후원했다.

100년 장수기업의 꿈

황본현 대표는 그를 업계 선두주자로 만든 특유의 추진력으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들 황선우 상무와 함께 선일금속을 이끌며 가업승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님은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사업을 시작하고, 45년간 수많은 부침에도 꾸준히 회사를 성장시켜 오셨죠. 그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열정, 일일일선이 제가 이어갈 가장 중요한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황선우 상무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선일금속을 100년 장수기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다.

“처음 회사를 세울 때 돈이 모이면 좋은 일도 하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었지요. 일하면서도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일해왔고요. 하지만 바쁘게 살다보니 직원 복지를 챙기고 때가 되면 기부하고 이렇게 손이 닿는 것만 챙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의미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황본현 대표는 ‘제가 친구의 영향으로 후원을 하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저를 계기로 후원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

글 편집부



황본현 대표가 주방시설 디자인에 대해 직원과 의논하고 있다.